기도로 '코로나 극복' 원력 모은다

조계종 기도 입재 · 온라인 의식집 배포

노덕현 · 윤호섭 · 하성미 기자



용인 법륜사 스님들이 마스크를 끼고 코로나 극복기도를 올리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대구 대관음사에 걸린 대구시민 응원 플래카드.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전국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교계가 산문 폐쇄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 사태 극복에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대응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의 건'을 통해 전국사찰 기도정진 방침을 공개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사찰 기도정진은 3월 9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기도정진은 사찰 상주 대중이 매일 조석 예불 등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의식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도의식은 전통적으로 병고를 극복하기 위해 대승불교권에서 널리 독송된 경전 〈약사여래경〉과 웨살리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 부처님이 독송하도록 권한 〈숫타니파타〉 속 〈보배경〉을 중심으로 한다.

교구본사주지회의 방침 공개
〈약사여래경〉 〈보배경〉 중심
개인, 일선사찰 동참 이어져

조계종은 "사찰에서는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진행하고, 신도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에 가족과 이웃을 위한 서원의 등 달기에 동참해줄 것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의 방침에 앞서 불교계 일선현장에서는 기도 정진이 먼저 시작됐다. 특히 스님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기도가 열려 눈길을 끈다. 용인 법륜사(주지 현암)는 2월 23일부터 매일 오전 9시 30분 스님들이 대웅전에 모여 〈자애경〉 21독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법륜사 교무국장 설경 스님은 "짧은 시간 기도를 올리지만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중계 통해 가정기도 유도

서울 봉은사도 3월 2일부터 매일 사시예불에서 '코로나19 국난 극복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1시간 30분간 진행되는 발원기도는 사찰을 찾지 못한 신도들을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서울 조계사는 주지 지현 스님의 영상법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코로나 극복 기도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밀양 삼봉사(주지 녹원)도 24일부터 49일간 스님들이 동참하는 코로나19 특별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불교계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은 3월 9일까지 업무시간 내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하루 30분 〈금강경〉 독송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각 사찰에서는 산문 폐쇄 중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플래카드를 걸고 조속한 회복을 위한 마음을 보태고 있다.

사찰 플래카드 등 응원도 진행

대구 한국불교대관음사는 본관 입구에 '코로나를 다함께 이겨내자'는 플래카드를 걸었으며, 대구 경북지역 사찰들도 산문 폐쇄 중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격려 플래카드를 걸고 있다. 서울 조계사와 광주불교연합회 등 주요단체들도 코로나 극복 기원 플래카드를 일주문에 걸 예정이다.

또 조계종부산연합회는 2월 2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위로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산연합회는 위로문에서 "언제나 위기 속에서 답을 찾은 것처럼 국민 모두가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고 힘을 모은다면 국난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코로나 극복 발원문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이
햇빛과 공기와 물과 흙,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의 청정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소중한 인연들에 감사하며
온 생명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우리 모두는 고귀하고 거룩한 생명입니다.
청정한 마음과 몸으로 병마를 이기는 힘을 길러
함께 일어서기를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와 가족, 이웃은 더불어 사는 운명공동체
입니다. 인종과 종교, 국경과 신분을 초월하여
지구촌 모든 인류가 화합하며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간절한 서원을 받아주소서.
나무 약사여래불. 나무 약사여래불.
나무 약사 유리광여래불

휴관에도 취약계층 돌봄 '현재 진행형'

[현장] 코로나19 휴관에 더 바쁜 복지관들

윤호섭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조 모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정관 스님. 마스크를 쓴 어르신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사진 오른쪽은 도시락을 포장하는 스님과 직원들의 모습.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 종로구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2월 1일부터 곧바로 휴관에 들어간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방역당국 관계자들과 취재진의 잇단 발걸음이 끊어진 3월 5일 아침에 찾아간 복지관은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하지만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만 보이지 않을 뿐 복지관 직원들은 매일같이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적은 인력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관 직원의 도움으로 잠긴 문을 열고 관내에 들어섰다. 열감지 검사를 받은 뒤 손세정제로 손을 씻고, 출입대장을 기록한 후에야 정상적인 운신이 가능했다. 복지관장 정관 스님이 기자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휴관해서 편하겠다'는 세간의 오해에 항변하듯 먼저 말문을 열었다.

"복지관 휴관이라고 하니까 일 안 하고 쉬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휴관상태인 지금이 평소보다 더 바쁩니다. 종로구 확진자와 연관이 있다는 질타까지 받으니 한동안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했고요."

'휴관=쉰다'는 세간의 오해
도시락 배달 · 안부 확인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 보내

한숨 섞인 스님의 얘기에서 해명도 하지 못한 채 받아들여야 했던 세간의 눈총으로 인한 고충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정관 스님과 구내식당으로 이동했다. 식당 한 편에서 복지관 직원들이 음식을 포장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스님도 말없이 다가가 일손을 보태기 시작했다. 한 복지사는 "복지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위해 매일 60인분의 식사를 배달한다"면서 "일자리어르신들께서 하시던 일이지만 복지관이 휴관해 직원들이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관 스님과 직원들은 식탁 주위에 모여 1회용 비닐에 밥과 밑반찬을 담았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친환경복지관으로서 스테인리스 용기로 도시락을 전달하던 모습과 차이가 크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1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정부와 지자체 방침을 따른 것이다.

이날 복지관이 준비한 도시락 식단은 기장밥와 돼지갈비찜, 도라지 · 오이무침, 깻잎무침, 김치다. 여기다 어르신들의 주말 식사를 책임질 대체식품도 함께 포장됐다. 정관 스님은 큼지막한 주걱으로 1회용기에 밥을 담으며 "한 끼 도시락이지만 넉넉하게 담아 두 끼, 많으면 세 끼까지 어르신들 식사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스님과 직원들은 1시간가량 도시락을 포장한 뒤 각각 배달에 나섰다. 스님은 청운효자동 조 모(87) 어르신댁을 찾았다. 대문을 두드리며 "복지관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외치자 조 어르신이 마스크를 한 채 환한 얼굴로 반가운 손님을 맞이했다.

"날도 춥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번거로울 텐데 매일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직원들도 다 아들딸 같고…."

도시락을 건네받은 조 어르신이 스님과 복지관 직원들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건넸다. 조심해서 돌아가라는 품 넓은 배려도 빼놓지 않았다.

복지관은 현재 이렇게 도시락 배달만으로도 오전업무를 다 보낸다. 배달이 지연되면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거르는 일도 생긴다. 그렇게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전화로 확인하며 오후를 보낸다.

"독거어르신들부터 안부를 확인하고, 외출 자제를 부탁드리면서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매일같이 말씀드려요.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발생하면 곧바로 또 찾아가고요."

청운효자동에서 함께 도시락을 배달한 한 복지사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루 일과를 설명했다. 회원 약 1만 명, 일평균 1000명이 이용하던 복지관이 문을 걸어 잠그자 복지사들은 더 바빠졌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한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백 곳에 달하는 불교계 복지시설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휴관이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묵묵히 일을 다하는 복지활동가 모두가 부처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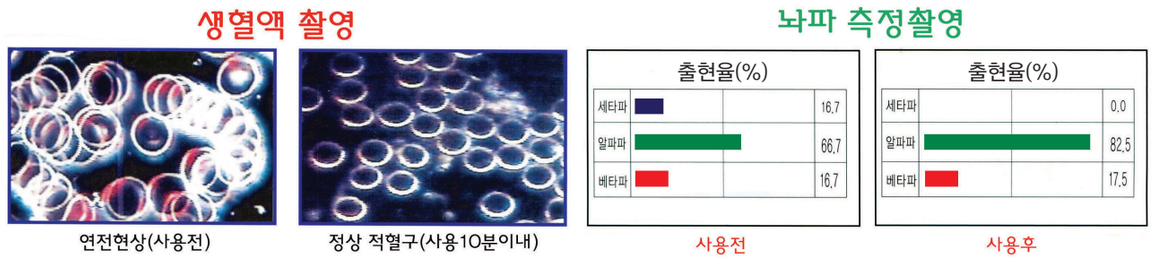
폐렴균, 대장균을 99.9% 정균 감소

폐렴균과 대장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양치 후 뱉어 내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폐렴균을 99.9% 정균 감소시키며, 폐렴 예방은 물론 퇴치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장균을 99.9% 정균 감소시키는 ORAL MATE®치약은 **식중독** 및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과식**이나 **과음**으로 속이 불편할 때, **취기**가 올 때 양치 후 뱉어 내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속이 빨리 편안해지고 술도 빨리 깨며, 정신이 맑아집니다. **잇몸이 약하고 아플 때, 이가 시릴 때,** 아픈 부위에 ORAL MATE®치약을 발라주면 통증이 그냥 사라집니다. 잇몸이 튼튼해집니다.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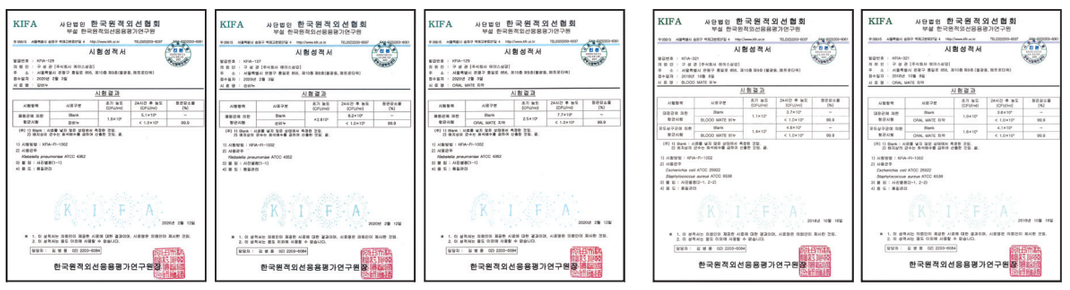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 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 뇌파 측정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사용전 사용후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개발자 체험담

-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로 고생했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하여 감기를 잊어버린(나은) 경험.
- 비염, 축농증으로 코막힘이 심하고 누런 콧물이 자주 나왔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한 후부터는 코가 뻥 뚫리고 누런 콧물이 없어졌다.
-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눈동자를 마사지하고 나서부터는 안경을 써야 볼 수 있던 신문을 안경 없이 볼 수 있고 눈동자에 힘이 생겼다.
-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ORAL MATE®(치약)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삼켰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고 이틀에 한 번씩의 샤워로 6년 동안 감기, 몸살을 앓아 누워본 적 없다.
- 잇몸이 아프거나 이가 시릴 때에는 ORAL MATE®(치약)을 부위에 발라주면 통증이 그냥 없어진다.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75,000원 ●순비누:120g 개당 35,000원
ORAL MATE® ●치 약:120g 개당 21,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